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26	08. 02	08. 09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장래황 형제
성 경 봉 독	이상호 목사	정해욱 형제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7월의 축복 인사 :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휴가와 여러 일정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우리의 삶을 불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 한민 말씀방, 금요 기도회, 주일예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신기훈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69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정환영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나 2 : 8 - 13(구p1300) (Nahum 2:8~13)	정환영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최상우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힘의 끝에서 만난 십자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갈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힘의 끝에서 만난 십자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건강, 재산과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나훔 2장은 세계 최강국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주며, 그 심판 너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1. 하나님 없는 영광은 반드시 무너진다.

니느웨는 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재물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반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실체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자에 비유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니느웨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3. 힘의 끝에서 만난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영광은 결국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는 현재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2.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